

1년간 아파트값 상승 1위 '인천'



▲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shutterstock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상위 3곳은 인천, 충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44.07%(1,348만7,000원→1,943만1,000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43.10%(686만2,000원→981만9,000원) 오른 충북, 3위는 35.52%(684만4,000원→925만6,000원) 상승한 강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충남 30.11% ●제주 29.15% ●경기 28.55% ●경남 37.81% 등 순이었다. 서울은 19.1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2.65% ●5개광역시 20.03% ●기타 지방 27.94% 순이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이 가까우면서 GTX 등의 교통호재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등의 굵직한 개발사업들로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충북과 강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지방 비규제 이점을 받아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충북과 강원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각각 686만2,000원, 684만1,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3, 4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1, 2위는 경북(658만7,000원)과 전북(666만1,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고점 인식과 자금 조달 부담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서울이 가까우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9명 '30~40대 여성'

30~40대 중 1년 이상 장기 비(非) 경제활동인구의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최근 여성고용 동향과 개선과제' 보고서)을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여성고용의 특징으로 ●여성 노동력 유향화 현상 지속 ●경력단절곡선의 학력별 분화와 고착화 ●성별로 차별화되는 실업 상황을 꼽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지난해 기준)이었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과거 취업경험 있음', '일을 그만둔 시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직장(일) 희망하



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30~40대 여성 인구 중 약 4분의 1이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7~2021년) 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여성 실업자 수(48만4,000명, 2020년)는 IMF외환위기 시기(48만6,000명, 1998년)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윤희 경총 고용정책팀 책임위원은 "많은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내년 도입 추진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내년까지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날 서울역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 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있고 버스 환승 할인만 받기 못한다.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광위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해 2023년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광위는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우 대중교통비가 약 27~38%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지하철·버스비는 7만5,000원인데 비해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5만5,000원으로 26.7%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30km 구간은 9만9,000원에서 6만1,700원으로 37.7%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통합 정기권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면서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